



오월영령이 잠들어있는 국립 5·18민주묘지. 무등산에서 떠오른 아침햇살이 추모탑과 유명봉안소 사이를 비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i5605@srb.co.kr

아직도 눈감지 못한 통탄의 오월이어

-5·18 39주기에

오월광주여, 그 이름 불러만 봐도
우리들 가슴은 마구 뛰고
금세 눈시울은 뜨거워지지만- 그러나
심장에는 싸늘한 얼음이 박힌다네

오월광주여, 그 한 마디만 떠올려도
광장의 함성소리에 몸이 떨리고
자유와 민주의 드높은 깃발이 보이지만-
여전히 귀를 찢는 군화발소리 들린다네

오월광주여, 우리는 그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절망의 어둠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어두운 가슴을 송고함에 물들게 하지만-
아직도 평평거리는 학살자들의
저주의 음성에 치를 떤다네

봄날 꽃잎 물들던 가슴에 눈보라친다네
오월광주여, 우리는 여전히 치를 떤다네

죽은 자는 있으나 쓴 자는 없고
쓴 자는 있으나 사살명령을 내린 자는 없고
수많은 주검이 뒤굴었으나 시신은 흔적도 없고
시신은 있으나 살인자는 없고
시신도 살인자도 있으나 참회도 고백도 양심도
뉘우침도 처벌도 없는 통탄의 오월이어

진실은 피투성이로 실려가 암매장 당하고
다시 파헤쳐져 화장되어 흩어져버린 오월광주여,
피 흘린 자 여전히 절망의 늪에 웅크려
고통의 지옥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학살자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5월은 끊임없이 난도질당하고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더러운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블랙리스트가 그들의 상식이었을 때
이것이 나라냐는 의침은 우리가 아직
건국중인 나라에 살고 있음을,

오월광주 정신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6월은 다시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났을 때
광주는 광주 이후 한 번도 과거였던 적이 없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현재적 항쟁이었을 때
인간 존엄을 위한 인간적 실천의 최후 보루였을 때

저 유신 잔당들과 독재의 잔당들과
학살자를 아버지로 모신 패거리들이
자기들 나라를 건국하는 그 앞길에
도저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월 광주였기에,
그 오월을 반란으로 꾸며대지 않고서는
그 광주를 누더기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 오월광주를 빨갱이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신의 나라를 건국할 수 없기에-

그리하여 오월광주의 역사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온 기막힌 역사여
39년 증거 인멸의 역사여

39년 진실 은폐의 역사여
팅 빈 역사에 반쪽의 문장이여,

그리하여 이제 다시 쓰여져야 한다
피눈물이어 잘려나간 젓가슴이어
이제 다시 쓰여져야 한다
어린 소년의 가슴을 관통한 총탄이어
무너진 어머니의 가슴에 퍼부어지는 저주여
아직도 한 점 위로도 받지 못한 영령이어
이름도 얼굴도 없는 처참한 영령들이여
이제 다시 쓰여져야 한다

그리하여 오월광주여, 봄날은 왔으니
눈보라쳐온 세월이어 이제 그 상처에도
그 피눈물에도 새잎 돌아야 한다
광주는 남도에 있지만
'오월광주'는 한반도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백무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위대한 5월 정신, 함께하겠습니다.

SRB MEDIA GROUP

SRB미디어그룹